

예술가처럼 생각하라!

전문가 칼럼

정재훈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번 학기 처음으로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한 강좌를 맡아 강의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95년 가을 이후 22년만의 모교 방문. 수업이 있는 매주 목요일,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를 찾게 되었다. 캠퍼스의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사람은 더 많아진 것 같고, 공간은 오히려 작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오가며 마주치게 되는 낯선 사람들도 마치 과거에 알았던 사람마냥 친근하게 느껴졌다. 세월이 흘러 스무 살 대학생들 둔 학부모가 된 나였지만, 캠퍼스를 걷고 있노라면 나의 시계는 28년을 거슬러 내가 스무 살이던 1989년의 어느 날로 되돌아가고 했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후배들 앞에 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버거운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웠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의 눈망울 속에서는 대학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경험한 나의 모습이 읽혔다. 어떻게 하면 오래 전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지만 간절히 기대했던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나의 고민은 깊어 갔고,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매순간 반응이 매섭게 느껴졌다.

불확실한 미래사회 예술가처럼 생각하라

거침없이 흘러가 버린 12주. 벌써 한 학기의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업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예술가처럼 생각하라"는 결론부로 다가가고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와 위협에 대한 논의들이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지혜와 지식체계가 통용될 수 없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중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어떻게 하면 혁신의 가속화와 가치의 대격변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출처=Pixabay

까? 그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예술가처럼 생각하라'라 생각한다.

예술가는 정해진 미적 가치를 거부하고 작품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한다. '예술가처럼 생각하라'가 오늘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예술가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강좌의 마무리 시점에서 예술가처럼 생각하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피카소나 워홀과 같이 탁월한 예술가가 되는 법을 전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자세로 예술적 작업을 수행했는지, 창작의 과정 속에 부딪히게 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며, 또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그들을 성공적인 예술가로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술가의 사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예술가는 창조자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 둘째, 예술가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작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과 빈번한 실패를 도약을 위한 기회로 수용한다. 셋째, 예술가는 예술적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들은 섬세한 감각을 도구 삼아 주변의 사물과 상황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쉽게 발견하며, 이러한 경험을 작품의 모티프로 사용한다. 넷째, 예술가는 평범함(mediocrity)에 만족하지 않고 탁월성을 부단히 추구한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달콤한 위로와 칭찬에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예술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섯째, 예술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법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배우고 자신의 작업에 적용한다.

'Entrepreneur(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도전을 마다않는 예술가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기업가'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예술가이다. 생각하는 존재(H. sapiens)로서 인류는 무한한 상상과 창조적 DNA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태도를 버리고 창의성, 공감, 도전정신, 독창성과 탁월성의 추구, 개방적 태도라는 예술가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되든 직면하게 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새로운 해답은 예술가적 관점에서

이제 학기가 곧 끝나고 나는 '선생'의 자리에서 '선배'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작 진짜 공부해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루어지는 법. 수업을 통해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한 후배들의 기억에 남아,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밑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술가처럼 생각하라'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창조의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아직 쓰여지지 않은 미래를 창조해가며,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참여마당

강봉주
(스페인어학 2013)



위선과 책임

로마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교육제도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느꼈다. 하나는 우리가 위선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이다.

로마컨퍼런스에 참가한 연사에게서 처음 느낀 감정은 불쾌함이다.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한다며 모인 그들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듯 보였다. 시혜적 관점에서 '너희를 위해 고민을 해봤다' 정도의 불투명한 비전만을 제시했다. 깊이 있는 고민이나 성찰이 느껴지지 않아 분노했다.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은 엘리트 석학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지 않는다는 실망과, 표면적인 변화만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불쾌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 또한 그들과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난민이나 기아문제가 멀게 느껴지듯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치열하게 고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엘리트들이 내놓은 결론은 교육에 직접 닿아있는 우리의 요구나 필요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제도를 개혁해 우리의 문제를 그들의 삶에 직결시키면 된다.

강의평가제도와 상담교수제가 대표적이다. 강의평가 결과는 정교수의 명성에 흡입되어 내겠지만 삶에 큰 타격은 주지 못한다. 상담교수제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은 상담을 받지 않으면 수강정정기간이 짧아진다. 교수에게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알고 있다.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과 소통해야 할 의무를 지닌 쪽은 교수이다. 로마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논의했던 학생이 교수에게 원하는 자질은 멘토이자 교육자로서의 면모일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대학은 대학본부, 교수, 학생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대학본부와 교수는 고용 관계를 맺고, 학생은 대학본부에 자원을 제공하며 상호작용한다. 정작 교육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 사이는 일방적이다. 학생에게 교수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물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다수 교수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서 비롯한 절실함이나 입장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상담교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강의평가 결과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은 교수가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지 않겠는가.

교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사회 안에도 위선과 책임회피는 존재한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쉬이 말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원하는지는 의문이다. 승자독식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다고, 혹은 오를 수 있다고 착각한다. 노력하면 1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달기 때문이다.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두려워한다. 변해야 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은 그저 말에 그친다.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교육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이다. 그 누구도 우리만큼 절실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으며 노력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 삶에 책임을 다하자고 말이다.

경희대학교 전외국어

아직도 외국인 앞에만 서면 병어리 입니까?
도대체 뭘 배우셨습니까?
독해 중심의 외국어, 시험 위주의 외국어 학습시대는 지났습니다.

경희대학교 전외국어 개설 강좌

회화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한국어
비즈니스반	중국어: Global Chinese Business 일본어: OKI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공인시험 준비반	중국어: HSK, BCT, TSC, CPT 일본어: SJPT, JLPT
영어연결 준비반	Job Interview, 항공 승무원 영어인터뷰
특수전공목적 영어반	교육/미디어: 대학행정실무영어, 대학 교양영어 등 금융/경영/MBA: 재무영어, 회계영어, 경영영어, MBA 영어, 마케팅 영어 등 관광/호텔/외식경영: 호텔영어, 관광영어, 요리영어, 워킹홀리데이 영어 의학/의료: 의학영어, 간호영어, PA(의료보조 영어), 물리치료 영어 IT/공학/이학: 전기영어, 전자영어, 기계영어, IT영어, 엔지니어링 영어 등

경희대학교 전외국어 수강신청안내

수업회차	수업시간	수업기간
주2회(화목)	10분/20분 중 선택	1개월/3개월 중 선택
주3회(월수금)		
주5회(월-금)		

01 수강신청
* 온라인 접수
* 과점명 등록여부 확인 후 접수

02 레벨테스트
* 신규입학(공인영어시험 기준)
* 학업기속(수업기록 및 과목목표 설정)

03 수업신청
* 학업기속(수업기록 및 과목목표 설정)
* 수업시간을 정하면 1:1 수업

04 수강관리
* 학업기속(수업기록 및 과목목표 설정)
* 레벨테스트와 바로 진행

무료 레벨 테스트 신청하기 | 무료 체험(영/중/일)수업 신청하기 | 수강 신청하기

경희대학교 전외국어 | 문의: 경희대학교 사외교육원 | khu.jangcademy.co.kr | 02.961.0871-2

KYUNGHEE PHYSICS COLLOQUIUM

물리는 섹스와 같다.

물리도 유용한 결과물을 준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아니다.

by 리처드 파인만

김상욱 교수
(부신대 물리교육과)

일시 : 2017년 12월 7일(목) 16:30
장소 : 오비스홀 111호

주 관 :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 기초과학연구소